

◆생물학적 성

- 1.성의 탄생
- 2.짜짓기
- 3.인간의 본성
 - ① 일부다처제와 남자의 본성
 - ② 일부일처제와 여자의 본성

*생물학적 관점의 성(인간의 본성과 성의 진화에 대한 이해)

1. 성의 탄생
 - 삶의 의미: 더 많은 후세 창조. 자신의 유전자 후대에 전달⇒종족번식
 - ↳섹스=유전자가 섞여 새 생명 창조하는 것
 - ↳어떻게? 정자와 난자 필요
 - 남성: 정자의 크기가 작고, 움직임이고, 많은 정자 세포 생산, 난자를 찾아다니는 기능 (유동성)
 - 여성: 난자의 크기가 크고, 움직이지 않고, 귀하고, 영양 공급의 기능

1. 성의 탄생
 - 과정

75,000 유전자 (DNA)한 쌍 (게놈genom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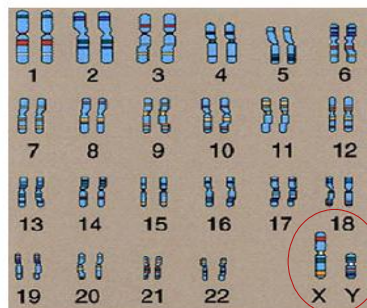
23쌍의 리본처럼 생긴 염색체
(chromosome)

남자의 정자 속 23개의 염색체 + 여자의 난자 속 23개의 염색체
75,000개의 유전자 75,000개의 유전자
=

23쌍의 염색체와 75,000쌍의 유전자 지닌 태아

인간의 염색체

1



*성의 창조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 감수분열(meiosis)
- 재조합(recombination)
- 이종교배(outcrossing)

성= 재조합+이종교배. 유전자의 혼합이 성의 중요한 특징. 성의 필수 과정.

①유전자와 성염색체: 23쌍의 염색체 중 1쌍이 성염색체 XY (남성), XX (여성)

②호르몬: 개개인의 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인간은 호르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함

-개개인의 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임신 단계에서 시작: 유전자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요소를 자극해서 태아의 발달 단계를 조정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바소프레신(vasopressin):

-에스트로겐(estrogen):

-옥시토신(ocytocin):

2. 짝짓기

①난혼: 여러 수컷과 여러 암컷이 특정한 파트너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우연히 짝을 짓는 방식

②다혼: 하나의 수컷이 여러 암컷을 파트너로 정해두고 짝짓기 하는 일부다처 형과 하나의 암컷이 여러 수컷을 파트너로 정해두고 짝짓기 하는 일처다부 형

③단일 혼: 하나의 수컷과 암컷이 지속적으로 짝짓기 일부일처 형

-남자: 지속적 성행위에 흥미

-여자: 간헐적 성행위에 흥미

-암컷: 수컷에게서 받은 단 하나의 정자를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데 이용. 자녀에게 50%의 자신의 유전자 물려줌.

-수컷: 암컷이 정상적인 번식을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 즉 짝짓기에서 수컷의 행동은 중요. 성적으로 소극적인 수컷과 함께 있는 암컷은 2세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리적 현상을 겪지 못함. 수컷과 떨어져 있는 암컷은 배란 현상이 드물. 암컷이 번식하는데 필요한 신경내분비가 정상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구애하는 수컷이 있어야 함.

-모든 생물의 '짝짓기 체계Mating system'

-사람의 짝짓기 체계: 5가지

- 현대인-일부일처제
- 인류역사-하렘의 첩
- 석기 시대-일부다처도 일부일처도 아닌 형태
- 유인원 연구-인간을 원숭이와 비교
(고릴라-일부다처, 긴팔원숭이-일부일처)
- 인간처럼 사회적 습성을 갖는 동물들, 새, 돌고래 등 과 비교
⇒인간은 일부일처제에 어울리도록 설계 (?)

3. 인간의 본성: 종족번식 위해 서로 필요//정자와 난자의 성격≠

-지구상 대부분 일부일처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

사회적 평등 체계가 규정한 것=인간의 본성?

-남자에게 여자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운반 도구

-여자에게 남자는 자신의 난자를 태아로 바꿀 수 있는 생명 물질, 즉 정자 제공자

-다른 쪽 성을 이용

① 일부다처제와 남자의 본성

-유혹

-청혼

-누가 더 열정적인 청혼자?

예) 공작새-수컷 (짜짓기 횟수에 열중: 매번의 짜짓기로 많은 것 얻음)과

암컷 (번식 가능성 제한. 짜짓기의 품질에 열중: 자식 키우는데 심혈)

-남성·여성간의 불균형: 정자와 난자의 차이 (5분의 쾌락≠9달 임신기간 힘들고 고통)

↳다산성과 연결 (남성)

-남자는 권력과 재산 ↔ 여자는 생식능력

인간의 짜짓기는 남자와 여자 간에 일어나는 교환

예) 황제들의 성 활동 (중국, 인도-노예 아내)

↳남성이 과다하게 성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많이 갖고 싶어 함

-남성의 폭력성: 종족번식에 대한 본능⇒성적질투

예) 1790년 핏케언 섬 사건, 1960년 베네주엘라 야노마미족 (나폴레옹 샤농 연구)

-일부다처제는 여성들이 선택? 남자들 간의 부의 불일치

예) 부족국가, 현대

-일부다처제의 소멸 :

사회적 안정 도모(모든 남성들이 아내를 얻을 가능성), 민주주의의 탄생

② 일부일처제와 여자의 본성

-여자들은 일부일처제 결혼을 추구

-까다로운 조건: 돈, 사회적 명성, 좋은 유전자,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겠다는 보장

- "위험한 관계"식 본성

- "달라스"식 본성
- "보봐리 부인"식 본성

Cf. 외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본성

- * 세헤라자드 효과 (scheherazade effect)
- * 디오니소스 효과

◆성적 자아발달

1. 유아기의 성
2. 청소년기의 성
3. 성인기의 성

* 리비도 (libido)

성충동, 성 본능에 따른 성적 에너지

성욕은 생의 충동 (↔ 죽음의 충동)

성욕은 수유를 계기로 발생

발달 순서

- ① 구순기 : 입술 (성감을 느끼는 기관)
- ② 항문기 : 배변의 쾌감 (2-4세)
- ③ 남근기 : 성기를 통한 만족 (3-6세)
- ④ 잠재기 : 성충동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 (5-11세)
- ⑤ 사춘기 : 이성애 (12-17세)

*프로이트의 성 심리 발달 단계

1. 유아기의 성 (약 2-4세)
 - ①원초적 나르시시즘(Narcissism 자기애)
 - ②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 ③거세 콤플렉스(Castration complex)
 - ④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 남근선망)

①원초적 나르시시즘

-근원적 나르시시즘

-어머니

-행복한 시기

-최초의 사랑 경험-이기심

-사랑의 상처

-사랑과 증오

-어머니와 아내

②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어머니는 욕망의 대상이자 금기의 대상

-사랑의 삼각관계

-아버지와의 경쟁심리

③거세 콤플렉스

-거세에 대한 공포와 승리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사회적 압박에 의해 억압된 어머니

-어머니가 다른 여성으로 대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아이의 어머니 독점애, 아버지 질투, 배척, 무의식적 소망

④엘렉트라 콤플렉스, 남근선망

-여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거세에 대한 어머니 원망

-애정⇒증오

-남근을 가질 방법 모색

-욕망의 대상: 어머니⇒아버지

2. 사춘기의 성

-puberty

-사춘기: 나르시스적 에고 본능이 성본능으로

-성호르몬으로 신체적 변화

① 제1단계: 성적 공상의 시기-건전한 성적 공상은 심리적 성의 성장

-관계를 위한 연습: 성적 공상과 상상력

-성적 공상의 성별차이

-윤리적 문제

② 제2단계: 성적 집착의 시기-개인적 관심의 집중 “집착”

-신체적 변화와 외모

-동년배들과 사회적 압력

-십대의 하위문화: 패션, 유행, 소지품들

-개인적인 정체성 대두

③ 제3단계: 관계 탐색의 시기-사랑의 유대를 맺고자 하는 갈망

-사랑에 빠짐

-정상적인 나르시시즘

-신체적 표현의 수준들

*존중 받아야 할 청소년기의 성

3. 성인기의 성

*성숙함?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성을 표현하며 살 것인가 결정

제 1단계 : 심리적 성숙의 시기

진정한 우정관계에서 성장하는 능력, 타인에 대한 개방성

①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

②공감

③대인 관계의 민감성

④신뢰

⑤동등성

⑥자기 노출 능력

⑦자발성

제 2 단계 : 계속적인 통합의 시기

-끝나지 않은 여정

-심리적 성의 성숙과 성적 표현

-성혁명과 성인기 발달

①초기 성인기 (20~40세)

-떠남의 시기

-선택의 시기: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내 삶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모험의 시기

-포용의 시기

-포용에서 물러서는 시기

②중기 성인기(40~60세): 권태기, 폐경기, 갱년기

-재평가의 시기

-신뢰의 시기

-심화의 시기

③후기 성인기(60세 이후): 노년기

-끌어안음의 시기

-포기의 시기

-친밀의 시기

*성심리 발달 과정의 상처들: 건강한 심리적 성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 성인기의 인격적 사랑과 친밀함의 능력에 영향

①심리적 성이 입을 수 있는 상처들의 범위: 성폭행, 포르노의 처벌

②심리적 성을 구속하는 여러 가지 속박들:

- 성적, 신체적, 정서적 폭행
- 빈번하고 심한 매질
- 나이에 걸맞고 정확한 성 정보와 교육 받지 못함
- 성적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걸림
- 성적 학대, 심리적 성과 관련된 조롱
- 전문적 도움을 받는 과정에 성적 희생자가 되는 경우

*생 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1. 꽃과 어린왕자: 사랑을 어떻게 할까?

- ‘그 꽃의 신비로운 화장은 꽤 여러 날 이걸렸어요’
- ‘그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전 이제 겨우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미안해요…아직 머릿도 엉망이고…”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 해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그 꽃은 정말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

“아침식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어린왕자는 어쩔 줄 몰라하며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다 꽃의 시중을 들었어요’

-이렇게 꽃은 태어나자마자 약간은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은 자기의 몸에 달린 네 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몰라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어요

“내 옆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 따위는 먹지도 않아요. ”

“전 풀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호랑이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갖고 있나요?”

‘바람을 무서워하다니…식물로서는 참 안 된 일이야.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저녁엔 유리덧개를 씌워줘요. 당신별은 너무 추워요. 설비도 엉망이고요. 제가 떠나 온 곳은…”

그러나 꽃은 거기서 말을 그만 두었어요. 꽃은 씨의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세계에 대해서 결코 알 리가 없었지요. 그런 뻔한 거짓말을 꾸며대다가 들킨 게 부끄러워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어요.

“바람막이는요?”

“막 찾으려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억지 기침을 하여 어찌됐건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대수롭지 않은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그를 아주 불행하게 했어요.

어느 날 그는 내게(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 속마음을 털어 냈어요.

“꽃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어요. 절대로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바라보고 향기나 맡아야 해요.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도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발톱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겼어야 했는데…”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때 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어요.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을 맑게 해주었어요.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련한 속임수 뒤에 애정이 숨어 있는 걸 알아차려야 했어요. 꽃들은 아주 모순덩어리에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2. 여우와 어린 왕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인간관계의 성립

“나랑 같이 놀자. 난 너무나 슬퍼…”

“난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길들여진다는 게 뭐지?”

“그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지”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내겐 넌 아직 수 십 만의 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난 네가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는 내가 수 십 만의 여우들과 같은 여우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거야. 나는 너한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겐 꽃이 하나 있는데…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관계에 대한 생텍쥐페리의 성찰: 어린 왕자가 버려두고 온 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별로 돌아가서 꽃을 돌보게 될 거라는 생각. 책임지는 관계,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저길 봐 밀밭이 보이니?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한테 쓸모가 없어. 밀밭을 보아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슬퍼. 그러나 네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신날 거야! 밀도 금빛이기 때문에 밀은 너를 기억하게 해 줄 거야. 그래서 밀밭을 스치는 바람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고…”

“널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돼. 우선 넌 나와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는 거야. 난 결눈질로 널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마. 말은 오해의 씨앗이거든. 그러면서 날마다 너는 조금씩 더 가까이 앉으면 돼…”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가령 오후 네 시에 네가 온다면 세 시 부터 난 행복해질 거야. 네 시가 되면 이미 나는 불안해지고 안절부절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지 난 알 수가 없을 거야…”

“장미들을 보러 가렴. 너는 네 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이별의 인사를 하러 와. 그럼 비밀 하나를 선물로 줄게”

“너희들은 내 장미와 조금도 닮은 데가 없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길들여지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어. 내 여우가 꼭 너희들 같았지. 내 여우는 수많은 여우들과 같은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 하지만 난 여우를 친구로 삼았고 그 여우는 이젠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너희들은 아름다워. 하지만 너희들은 비어있어.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인 내 장미도 모르는 행인은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거야. 하지만 내겐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것은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건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별레를 잡아준 건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심지어 침묵까지 들어준 내 꽃이기 때문이야. 나의 장미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갔어요

“잘 가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그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넌 언제나 책임이 있어. 넌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아저씨… 내 꽃 말인데요…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요! 그 꽃은 정말 연약하거든요! 너무나 천진난만해요. 별 것도 아닌 네 개의 가시를 갖고서 세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려 하고 있어요…”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숨겨 놓고 있기 때문이야”

◆동·서양의 성문화

*동양

*동양의 성의 원천:

①유교: 가문의 계승

②도교: 불로장생

③불교: 육신의 삶, 죽음, 성을 뛰어 넘는 정신적 해탈 중요

*유교와 도교:음양의 개념 중시, 두 개의 상반되는 힘이 우주 자연 신체 구성

*농경사회의 성 신앙과 성 풍속: 다산과 풍요, 개방적 성 의식

1. 통일 신라시대

-진성여왕

-불교적 윤리관: ‘세속오계’

-도교(노자)

2. 고려시대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공민왕: 성적 문란

-고려가요: 쌍화점(남녀간의 애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노래=퇴폐적 성윤리 풍자)

-향락적 성문화

- 유교정치: 충신, 효행, 열녀의 모범으로 도덕정치구현
- 성문화: '남녀칠세부동석', '칠거지악'
- 왕실사대부계층
- 조선시대불교
- 선비
- 외형=근엄한 유교사회/사대부 층의 이중적 성모랄 유지
- 도교의 영향
- *겸재 정선 산수화
- 회화이념: 음양이 조화롭게 어울린 대상찾기
- *조선후기 혜원 신윤복 풍속화: 에로티시즘발산
- 실학

*신윤복의 풍속화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성

- 기방풍속에 두세 쌍의 행락과 남녀의 밀회 중심
- 무속, 주막, 봄가을, 야밤풍경 설정: 유흥과 남녀 정념
- 연못, 깊은 산속, 강변, 어스름한 골목, 폐가, 우물
- <연당야유><소년전홍><기방무사><월야밀회><월하정인><이부탐춘><단오풍정><연소답
청>

*한국의 성의 현주소

- 조선 시대 이래로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문화
- 우리의 전통 사회는 유교 윤리의 영향을 오래 받아 정당한 성을 혼인의 틀 안으로 한정, 정절의 규범으로 성을 규제
- 전통사회에서 성은 부끄러운 것, 감추어야 할 것이었으며,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기

-그러나 근대화과 더불어 개방적인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태도도 많은 변화 보임.

-특히 60년대 서구에서 시작된 성 혁명의 여파가 우리 사회에 전달되면서 우리 사회도 급속한 성 개방과 성 자유화 물결을 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긴 지나친 성 개방의 태도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야기

우리 사회의 성도덕의 혼돈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합의 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성윤리를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립된 성 도덕을 사회 성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

-올바른 성 행동이 올바른 성윤리 의식과 성 지식에서 나온다고 할 때, 성교육은 성도덕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성 윤리의 정립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

-특히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는 폐쇄적인 전통적 성문화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 그 어디에서도 체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성교육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은 어른과 아이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 왜냐하면 성에 대해 극히 폐쇄적인 전통적 성문화로 인하여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성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성 문화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성적 규범을 요구하는 이중적 성윤리 의식을 보이기 때문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청소년 성 교육

-체계적인 성 교육 부재로 청소년들은 거리에 범람하는 대중 잡지나 만화, 음란물 혹은 선배나 친구로부터 비공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통로를 통하여 성 관련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성 의식 배움

-잘못된 성 정보와 성 의식으로 청소년 관련 성 범죄와 성적 일탈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청소년들이 과학적인 성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성 의식 및 성 태도를 확립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체계적인 청소년 성 교육 시급

2. 중국: 성 지침서, 유곽, 전족

자연에서 조화 찾음, 성관계의 조화 중시

도교:남성의 수명 연장 중시, 가문의 계승 의무 없음

유교:가족과 출산개념 중시, 사회적 기본요소로 가족의 계속성 중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강박관념

3.일본: 창부, 게이샤, 가부키

에로틱한 창조신화

공창제

4. 인도: 힌두교, 불교, 카마수트라

-자연과 성이 에로틱하게 얽여 있다

-성과 정신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 종교와 성이 하나로 연결

①힌두교:

- 예술작품이나 글을 통해 성적 사랑을 묘사=신을 향한 사랑,
- 성관계=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주를 재발견, 재경험, 회개하는 방법, 신과의 사랑
통해 육체의 삶을 초월

②불교:

- 정신적 해탈을 위한 독특한 방법, '부처는 유니 안에 있다'
- (불교신자)=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이 해탈을 하게 함

③카마수트라: 성에 관한 지침서, 자료

5. 중동

*하렘: 이슬람 사회의 부인들이 거처하는 방.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일반 남자의 출입 금지된 곳
- '금지된', '신성한'을 뜻하는 아랍어 '하림'이 터키어풍인 하렘으로 변용되어
비이슬람 국가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
- 외부와 격리되어 가족에게만 개방
- 예전에 이슬람교에서는 부인을 네 명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네 명의 부인이 함께
거주하는 곳
- 지금은 일부다처제 법으로 금지
- 지금은 몇몇 상류층 가문에만 하렘

*서양의 성문화

- 성의 변천사

① 고대

- 그리스: 신성부대
- 로마: 성은 번식. 시민들의 성생활에 관심
- 유대인: 번식에 반대, 아담과 이브
- 에로틱신화

② 중세:성의 암흑기, 억압기/ 성적방탕, 문란

기독교가 인간의 삶을 지배, 기독교문화+이슬람문화, 궁정식연애, 공중목욕탕(매음굴),
성병발병(13세기), 매독균(15세기)

③르네상스시대=관능의 시대

- 인간의 새로운 발견: 남자 (힘과 에너지), 여자 (자연으로 부터 부여 받은 모성의
직분에 알맞은 육체)

④ 17세기, 18세기: 귀족들의 색의 시대

청교도: 혼전 성경험 통제, 과학의 발전

사드 후작의 변태성욕/ 난봉꾼 카사노바

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시대 (부르주아 시대)

-새로운 가족의 가치/매춘, 포르노그래피의 발달

⑥20세기:

- 성의 혁명, 성 해방운동(1970), 에이즈(1980), PACS (2000), 동성애 결혼 합법 (2013)

*성 혁명 이전과 이후

-성 기능의 변화

-성 해방의 수혜자? 누구?

-남녀 결합의 변화: 결혼, 동거, PACS(?), 동성커플결혼

-성 의식 변화: 피임세대

*철저한 피임교육: 학기 당 30~40시간 성 교육, 피임법 필수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1. 남자 여자 어떻게 다른가?

-대화 내용 기억의 차이: 관심분야

-감각적 차이: 남성의 시각//여성의 청각

-성 의식의 차이: 남자의 부풀림//여성의 축소

(예, 공작새)

-감정적 차이: 동정심과 이해심

2. 왜 다른가?

①뇌의 차이: 가장 큰 차이

-여성의 언어처리//남성의 전두엽

↳좌뇌 형 여자//우뇌 형 남자

*감정지각 테스트

남성	여성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음	뇌 반응 활발
교감하지 않음	감정반응 즉각적
주변 상황에 무감각	주변 상황에 대해 감정을 주관하는 뇌 빠르게 반응
	타인 감정 파악하는 뇌 활동 왕성

*공감능력

1.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2. 누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아플까 느낌이 온다.
3.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의 숨은 뜻을 쉽게 알아차린다.
4.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불편해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5. 친구들이 자기 문제를 내게 자주 상의한다.
6. 어떤 행동이 무례한지, 공손한지 판단하기 쉽다.
7. 오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체계화능력

1. 자동차 살 때 디자인 보다는 배기량과 엔진 성능에 관한 정보를 먼저 살핀다.
2. 누가 아프다고 하면 좋은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3. 그림을 볼 때 사용한 기법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4. 제품 설명서를 잘 이해한다.
5. 방금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6. 새로운 가전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살살이 읽는다.

*남녀간의 뇌 유형 분포

• 남자

강한 공감형	0%
공감형	17%
공감-체계화형	31%
체계화형	46%
강한 체계화형	6%

• 여자

강한 공감형	7%
공감형	47%
공감-체계화형	32%
체계화형	14%
강한 체계화형	0%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

- 체계화형
- 목적 지향적
- 합리적
- 시각적 자극에 민감
- 컴퓨터, 기계, 정치, 전문적인 일

여자

- 공감형
- 관계지향적
- 정서적
- 어휘력이 뛰어남
- 봉사, 상담, 예술, 의사소통에 관한 일

②테스토스테론의 차이: 우뇌 성장 촉진

-경쟁심리 유발

-임신 8주 남자아이의 테스토스테론 증가 (손가락)

-공간파악시각능력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여성의 프로게스테론(생식주기)

③성적정신구조의 차이

-성적 기회: 잠재적 보상

- 배우자 선택: 부와 권력을 가진 남편//젊고 건강한 아내(생물학적 유산)
- 남성의 외모지상주의: 일부일처제의 유물
- 젊은 여성들의 허리는 왜 날씬한가?
- ④사회학적 관점: 성 역할, 사회가 성별에 따라 역할 구분 지어 살기 요구
-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 성 역할의 변화 가능성?

- *남자, 여자 어떻게 해야 할까?
- 한 성이 양성(남성성, 여성성)의 균형
- 한 인격의 전인적 발전 가능성
- 사회적으로 성 역할의 구분 바람직한가?

◆영화감상, 뭘 볼까요?

◆성과 사랑의 역사

1. 고대인들의 사랑

①고대 이집트

- 신들의 성행위 세상 비옥
- 아툼 신
- 양성 평등 완벽

②고대 이스라엘

- 유대 문화: 신들의 사랑 노래, 성애 표현 (구약 성서 아가서)
- 사랑의 신: 메소포타미아
- 신의 부인: 가나안 출신 아세라
- 창세기 신화: 여성 남성 타락, 부끄러운 육체
- 이브 창조: 철기시대에 존재

초창기 유대인: 다산 숭배, 성과 성행위 찬양 종교

↓ ↓ ↓

철기 시대: 철기 중요, 신과 영웅 중시, 남성 중시,
성은 남성의 힘으로 지배

↓ ↓ ↓

세상은 남성의 것

-BC650 예루살렘에서 아세라 존재 삭제 시기=창세기 쓰인 시기

여성=생명 탄생⇒남성을 타락, 죽음으로 이끈 존재로 강조

⇒육체는 수치 (이브)

③고대 테베: 신성부대=남성간의 사랑과 용기 상징

“사랑하는 연인들 앞에서 비겁한 모습 보이기 싫어 죽음 무릎 쓰고 서로 보호”

*고대 그리스: 고결한 아내, 노예, 매춘부, 동성애

④로마제국

-로마인들에게 그리스인들 약해 보임

-남성다움 강조

-아우구스투스황제: 순수로마혈통 양성 위해 로마남성+이탈리아여자, 친척 결혼

강요⇔의무적 결혼 반발→ 금발의 노예

⑤로마제국 시대 초기 그리스도교

-성과 사랑의 역사 탈바꿈

-반 이교도주의, 섹스 반대

-이교도 세상: 번식, 섹스, 새 생명 부활 중시⇒신과 인간 연결

(코린트,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 신전 매춘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이 후 사도 바울: “간음하는 자, 간통, 남색, 탐색하는 자 벌을 받을 지어다” “혼전 섹스 죄악” “결혼하지 말라. 처녀와 과부는 나처럼

독신으로 남아 순수하게 살아라”

⇒종교를 통한 성의 통제 설파

-로마제국: 성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음// 기독교: 아담 이브 이야기로 성에 대한 커다란 수치심

-고대 유대인: 신들의 성적인 힘이 세상에 활기, 신성한 육체적 사랑

-초기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교도 없앨 생각

↓↓

이교도 없애면 권력 중심의 이교도 사제자리 차지

-성에 대한 혐오감→결혼에 대한 사고 영향:

“결혼은 기독교의 매춘.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범죄” “섹스는 하느님의 사랑 받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의 성적욕구?

-교회: 모든 것 제한

-기독교 세력의 확장은 신과 인간을 떼어놓는 것으로 변질: 성을 억압, 사제들의 권한

2. 중세시대의 사랑

-기독교가 인간의 삶 지배

-중세 초기 결혼: 소유지 합치는 가족간의 사업상 거래 형태, 종교의식 아님

-12세기: 교황 근친 결혼 금지령 (11촌까지 허용)

-남녀간 결혼 순결 중요, 성에 대해 비우호적

-16세기 중반: 기독교 방식의 결혼거행

-기독교=남성들 세계에서 남성을 위한 종교

-여성: 불완전, 열등한 존재,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이슬람문화: 여성존중

-12세기 십자군 원정=기독교문화+이슬람 문화

↓↓↓

역사적 성 혁명: 유럽 문화 변화

*궁정풍 사랑 Courtly love(귀부인에 대한 기사들의 변함없는 사랑)

-여성우위의 궁정

-여성=무한한 동경의 대상

-기사들과의 사랑 : 기혼녀에게 구혼

-궁정식 연애 법칙=교회에 대한 도전

*로망스

-엘리오노르 궁정의 언어=로망스어

-전쟁 시와 영웅담→연애시⇒로망스

-폭력적 남성의 미덕→사랑의 행위: 난폭한 결투→여성을 위한 결투

*레이디 퍼스트 습관의 기원: 중세의 기사도 정신과 그리스도교

1. 기사와 마담

-기독교적 신앙으로 약자 절대 보호: 어린이와 여자

-십자군 원정 출정

-귀부인 숭배: 여성은 사랑 가득한 흠모의 대상

-행동 우아, 자기 완성(공훈)

2. 그리스도교

-11세기 이전: 여성은 악의 근원,

-11세기 말: 교회의 여인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

성모 마리아와 성녀

3. 17, 18세기 귀족들의 사랑

- 남성이 여성을 쾌락의 도구
- 여성은 남성을 유혹의 대상

4-1. 19 세기 낭만주의 사랑

- 인간의 본성이 예술의 이름으로 표현 ('노틀담의 꼽추' 에스메랄다, 카지모도-낭만주의적 인물)
- 1789 프랑스시민대혁명의 산물:인간과 예술가를 불확실하고 불안한 운명 앞에 놓이게 함
- 인류에 대한 비극적 관점: 감성적 인간, 감정 숭배
-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의지
- 존재의 행복에 대한 향수:도피(과거, 사랑, 이국)
- 주제:나폴레옹의 업적, 서사적인 회화, 전투장면들, 폭력, 동방세계(오리엔탈리즘), 죽음, 사랑, 중세, 이국에 대한 동경

4-2. 19 세기 로마네스크적 사랑

- 대 도시의 내연 관계와 성 매매: 부르주아적 프라이버시 발전으로 급격히 진전
- 대도시 극빈층 여자들: 중소 부르주아, 학생, 예술가, 수공업 장인, 상점주인, 여공, 재봉사, 여점원
- 반사회적 연인 관계: 비합법적 두 가정
- 화류계여성들
- 밀회

4-3. 19 세기 말 팜므 파탈 등장

- 게걸스럽게 색을 탐하는 여인
- 냉혹하고 잔인한 요부
- 흡혈귀처럼 남성의 정액과 피를 빨아 생명을 이어가는 사악한 여자
- 치명적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해 지옥으로 빠트리는 악녀
- 남성을 섹스로 유인해 파멸시키는 탕녀

‘사랑’

- ①에로스Eros - 남녀 간의 육정적이고 성적인 사랑. ‘열정’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
- ②필리아Philia- 친구간의 사랑. 우정이나 우애
- ③스토르게Storge-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간의 사랑.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다함 없는 사랑.

④아가페Agape -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

⑤플라토닉Platonic-육체를 무시한 정신적 연애

◆포르노그래피를 통한 예술과 외설 바로 알기

1.포르노그래피: 창녀porne+기록graphos,

①매춘부에 관한 글이나 그림지칭

②매춘부의 행위를 일반화시켜 성행위나 성적 이미지 묘사하는 모든 것들 지칭

③외설적인 그림 지칭

-심리적 최음제:로마시대의 유물, 빅토리아 시대의 발명품

-예술적 도구:철학과 정치이념을 주장하는 중요한 수단

2. 사디즘, 마조히즘 (SM)

-사드 후작

사드 후작 (1740-1814)과 사디즘

-사디즘: 가학주의, 성적 가학증/ 인간의 사악성, 폭력성, 잔인성

-사디스트: 고통을 주는 것에 쾌감을 느낌.

-사드의 가치:외설문학의 구체적인 한 장르를 구축

*마조히즘: 피가학주의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자세 마조흐에서 유래(글쓰기에 대한 병적 강박관념)

-마조히스트: 고통을 받음으로써 성적쾌감을 얻게 됨.

*외설

-추잡하고 더러운 것, 보기에 좋지 않은 것, 예절에 맞지 않은 것 (부정적 뉘앙스)

-상품화된 성적 이미지: 성 욕구 불러일으키는 것, 성적 흥분 고조시키는 것

*포르노그래피

-성 욕구 불러일으키거나 성적 흥분 고조시키기만 할 뿐 그 외에 어떤 의미도 없는
성의 묘사

*예술or 외설로서의 포르노그래피는?

① ‘매춘부에 대한 묘사’//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폭로하고 황폐화된 정서 비판하는
계기

②남자주인의 성 욕구 도발하고 흥분고조// 한 시대의 정신과 이념 재현

③관람자의 훔쳐보기 욕구 자극//성충동을 자극하지 않음

-여성을 남성의 성적 시선의 대상으로만 그려짐//여성이 정당한 하나의 성적 주체임 주장

④여성을 오직 성적 대상으로만 규정//포르노그래피 비판

-세계의 기원

◆에로티즘Erotism

Erotism이란?

① Eros ‘사랑’

-아프로디테의 아들, 사랑의 신, 연애의 신

-육체적인 사랑, 이성간의 사랑

-Erotic: 에로스적, 성적 (성적인 욕망을 자극한다는 분위기 풍김)

-인간을 창조한 존재: 그리스도교, 그리스 신화 (프로메테우스 ‘선각자’ ‘선견자’)

-지혜의 여신 아테나: 나비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콧구멍 속으로)

-나비: ‘프쉬케’ (정신, 마음, psyche, psychology)

-에로스와 프쉬케 스토리

-인간공주 프쉬케와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와 황금사과/ 파리스와 헬레네

-프쉬케의 의심하는 마음

프쉬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까닭이 있다면 그거라도 가르쳐 주세요

에로스: 내가 좋아서 이러는 것이니 굳이 내 모습을 보려 하지 마세요. 나는 그대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건가요? 믿어지지 않으면 내 곁을 떠나세요.

의심이 자리잡은 마음(프쉬케)에는 사랑(에로스)이 깃들지 못해요. 내가 그대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랄 뿐이지 삼가거나 섬기기를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프쉬케

‘의심이 고개를 들면 그 고개를 누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의심의 뿌리는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의 뿌리를 캐내어 버릴 수 있을까? 그렇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 의심은 뿌리째 뽑힌다.’

‘내가 이 호기심을 채우지 못하고 나날이 야위어 가면 신랑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그래 확인해 보자. 신랑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자. 이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결국은 신랑에게도 좋은 일이다.’

*수심에 잠긴 에로스

‘어리석어라 프쉬케여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것이오?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파국이오? 내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그대를 사랑했기 때문이오. 사랑의 그릇은 채움으로써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채우는 것이라던 내 말의 이치가 그렇게 알아듣기 힘들던가요? 가세요. 그대에게 따로 별을 내리지는 않겠어요. 사랑이 남아 있다면 영원한 이별보다 더 큰 별은 없을 테니까…우리는 오로지 영원히 헤어져 있을 따름이오.’

*비너스

‘이 하찮고 믿음이 적은 것아, 네가 신을 섬기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느냐? 네 신랑은 내 말을 귓가로 흘리고 너같이 하찮은 것에게 사랑을 기울이더니 어깨에는 화상, 가슴에는 상처를 입고 돌아와 몸져누웠다. 참으로 밉살스럽고 비뚤장이 틀리는 것아, 내가 이제부터 너를 시험하리라’

‘분수를 몰라서 신세를 망치고 의심을 물리치지 못하여 만고의 고생을 사서 하더니 이제 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이 꼴이 되다니…어서 일어나 내 어머니 신전에 가서 기다리세요. 나는 다녀올 곳이 있으니….’

-아프로디테 포르네: 음란한 사랑의 여신 (육체를 사랑)

-에로스: 프쉬케(마음) 사랑

②에로티즘

-성의 기능?

-인간 인식의 발전 과정

↳노동: 100만 년 전 호모 파베르(노동 하는 인간), 이성 획득

↳죽음: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에로티즘: 2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에로티즘 인식=동물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인간

이성적 인간: 성행위의 의미 파악



성행위 목적 부여: 쾌감



육체기관의 맹목적 본능(동물)→의도적 유희(인간)로 대체

*에로티즘=아기의 탄생, 생식이라는 자연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성에 탐닉

인간=에로티즘을 추구하는 유일한 동물, 성행위를 에로티즘으로 승화

-라스코 동굴 벽화: 에로틱한 양상, 에로틱한 욕망 표현, 에로티즘 탐닉

- 인간의 내적 삶의 한 양상
- 인간의 성행위 ≠ 동물의 성행위
- 인간의 성행위가 동물적이지 않을 때 에로티즘=심리적 연유, 내적 동기

◆에로티시즘Eroticism

- 남녀간의 사랑이나 관능적 사랑의 이미지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암시하는 경향
- 성적인 이미지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환기하는 일을 의미
- 어원: 에로스
- 생물로서의 인간의 육체적 욕망이나 생식행위보다는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연유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모든 문화적 전통, 신화, 풍속, 종교, 예술 속에 깊이 뿌리 내림

1. 최초의 에로티시즘

- 남성과 여성은 성교를 통해 고귀한 감정을 가짐: 사랑

↓↓

인간 삶의 변화: 섹스=뿌리

에로티시즘=즐거

사랑=꽃

남성: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이타적인 감정=섹스,

에로티시즘,

사랑

⇒최초의 섹스=인간의 정신을 순화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것

*에로티시즘의 타락의 길=문명의 발달: 불로 칼, 창, 화살로 전쟁, 지배자, 피지배자

2. 선사시대: 수간, 여성을 성적 노리개

3. 그리스, 로마시대

- 지배와 피지배 계급 구분 명확

- 포르노그래피의 세계만 존재

- 섹스와 에로티시즘 타락

4. 중세

- 에로티시즘의 타락기

- 인류 최초의 에로티시즘이 원천적 봉쇄 당함: 난잡한 성, 음담패설

5. 르네상스 시대

- 인간성 부활: 인간의 육체 찬미 대상, 섹스와 에로티시즘에 대한 담론

- 그림, 조각: 풍만한 육체, 남녀 성교 장면=에로티시즘의 빛 발산

6. 17세기 색의 시대

-에로티시즘은 허무한 쾌락과 포르노그래피 차원으로 퇴락

-난잡한 성교 판치는 세상

-유럽 왕족과 귀족들의 변태적인 성 행태 난무

7. 18, 19세기 부르주아 시대

-부르주아들이 겉으로 예절과 정숙함과 강조// 유곽과 뒷골목에서 17세기의 왕족과 귀족들의

성 행태 답습

8. 20세기 이 후

-순수 에로티시즘 실종과 복원 주장

-D.H. 로렌스 주장: '차탈레 부인의 사랑' 잃어버린 에로티시즘을 되찾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순수 에로티시즘을 방해하는 것:

①섹스를 순전히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보는 시각

②섹스와 에로티시즘을 정신과 의지로 통제하려는 시도

↓↓

성을 도구화하려는 속성, 인간을 극도의 쾌락 or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내몰아 분열과 파괴로 이끔

-순수 에로티시즘의 전제 조건: 남성과 여성이 상대방의 갈망과 상처를 느끼고 존중하는 능력

-순수 에로티시즘의 경지: 남성과 여성이 섹스를 통해 상대방의 갈망과 욕구에 융화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자신을 확립하는 상태

◆성윤리와 성도덕

1. 성의 세 가지 의미

①자연적 성, 생물학적 성: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신체적, 생리적 특징 또는 생식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의미. 자연적으로 주어진 생물학적 신체구조와 그 기능에 기반 하는 성을 의미.

⇒ _____

- '자른다' '나눈다' '나누어진 것, 구별된 것'

-구약 성서 창세기에서 남자의 분신으로 여자가 된 것 의미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양성 구별의 의미로 사용.

-생물학, 의학의 관심사

②문화적 성, 심리적 성: 남성다움과 여성다움과 같은 남녀의 성적 특징, 성차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소에 따라 구별되는 남녀의 성적 특징. 남녀의 성 정체성과 성 역할과 관련된 성.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 남성성과 여성성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 ⇒ _____

-인류 또는 인간 일반 의미.

-문법적 의미에서 명사의 성별을 구분하는데 사용.

-196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면서 문법 세계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 현실에서 성별의 차이, 즉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성 정체성

-사회과학적 탐구 대상, 심리학, 성 정치학, 페미니즘의 주된 논의 대상, 성 차별과 관련하여 윤리학의 특별한 주제

③ 욕망으로서의 성, 관능적 성: 가장 포괄적 의미. 성행위나 성 관계를 비롯한 성적 활동 또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관심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남녀의 자연적, 신체적 차이 또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심리적, 문화적 차이와 같은 남녀의 구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성적 쾌락, 성교와 같이 성적 욕망과 관련된 성의 관능적 측면

⇒ _____

-넓은 의미.

-성적인 것의 전체: 성적 욕망, 심리, 성적관행, 제도 관습들을 모두 포함.

-성 철학, 성 윤리학의 탐구 대상.

성윤리의 중심대상은 욕망으로서의 성. 인간의 성욕과 그 성욕을 표현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행위(성 행위)와 관계(성 관계)가 성 윤리의 중심 대상. 그 이유는 성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 또한 욕망으로서의 성이 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

2. 인간적 성의 특징

-섹슈얼리티로서의 성은 성욕을 통해서 표현.

-성욕= 동물적 본능

①개체 보존 본능

-생존과 관련된 욕망으로 표현

②종족 보존의 본능

-성욕으로 표현

③인간은 온전히 본능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존재 아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본능이 결핍된 존재

-인간은 다른 동물만큼 전문화된 본능이나 기계적으로 자동 조절된 본능 프로그램을 지니지 않음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생존을 보장해주기에는 부족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대한 자동조절 기능 부족→ 인간이 자기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파멸하거나 아니면 동물 이하의 존재로 전락 가능

-인간이 무분별하게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경우, 인간의 삶은 본능적 욕구에 대한 자동 조절 기능을 지니고 있는 동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인간은 본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만큼 본능의 지배를 덜 받음

-인간은 본능의 결핍에 대한 보상으로 이성적 능력을 지닌 존재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이성적 동물')

-인간은 본능을 지니고 있지만 본능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자동 기계 아님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이성의 도움으로 본능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본능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본능의 통제 자이자 의사 결정자 ⇒ 도덕의 인간학적 토대

↳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결정과 제어를 통해 비로소 생존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

⇒이런 이유에서 인간에 있어서 본능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의미: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것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추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의지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할 대상

*인간의 성욕과 동물의 성욕

<p>*인간</p> <p>① 다른 동물처럼 자동 조절 안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 넓은 성적 자유 주어져 있음 -인간의 여성에게 발정기가 없다 -아무 때나 성욕을 느낄 수 있고, 계절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성교 가능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도 성욕 느낌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이 주위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성욕 느낌 -수태 중일 때도 성행위 가능 -엄청난 자유 주어짐 -성욕에 대한 자동 조절 기제가 없고 성적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조절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인간은 성행위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성행위의 목적과 대상,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폭넓은 성적 자유를 누리는 인간의 성욕과 성적 활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이 따름. - 	<p>*동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정기 정해져 있어 그때만 성욕 느낌 -주위 환경이 나쁘거나 건강 상태가 나쁠 때 발정하지 않고 성욕 느끼지 않음 -수태 중일 때 자동적으로 성교 하지 않음 -전적으로 본능에 지배되는 동물의 성욕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 묻지 않는다. - -다른 고등 동물 중에서 인간의 정열적인 성적 활동을 능가하는 것은 사자뿐
--	--

-인간은 성행위에 있어서 의식적인 자기반성을 통해서 항상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식적 자기반성과 도덕적 자기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인간의 성은 짐승의 수준으로 전

락하거나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수준으로 타락

④ 인간의 성욕은 생물학적 욕구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욕구

-인간의 성에는 동물의 경우처럼 순수하게 종족 보존과 같은 본능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
님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_____ 이 결부

↳종족 보존의 생물학적 기능 충족

↳ 서로 즐거움과 친밀감을 함께 나눔으로써 결속 강화

↳성적 활동을 통해 사랑을 키움으로써 자아가 확대되는 정신적 성장 경험

-인간의 성욕은 다른 인간 존재와 함께 합일하고자 하는 욕구 포함

-이러한 욕구는 인간 특유의 것

3. 성의 가치

-성적 경험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

-성적 활동을 통해 강렬한 열정과 쾌감 느끼고, 친밀한 인간관계 경험, 사랑 확인,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식에 관여

↳성은 인간을 부부로, 부모로, 성적 쾌락의 음미자로, 연인으로 만드는 경험과 밀접히 관련
⇒ 성이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 의미.

①성의 생물학적 가치

-성행위는 그 자체가 생식의 과정: 일정한 조건하에서 새로운 생명 탄생으로 이어짐

-성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

-성은 양성간의 유전자 조합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창조함으로써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
서 인간의 유전자 적합성을 증대시키고, 자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

-성을 통해 생식을 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창조함으로써 종을 보존

②성의 쾌락적 가치

-성적 활동은 강렬한 감각적 쾌락 동반

-성적 즐거움은 강한 열정과 흥분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쾌락 가
운데서도 가장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

-성적 쾌락은 생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 구혼, 성교, 양육에 대규모로 투자
하도록 하는 수단

-성적 쾌락은 남녀 간의 결합 촉진

③성의 인격적 가치

-성적 욕구= 타인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

-인간의 성욕에는 타 인격과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합일하고자 하는 욕구, 하나의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 포함

-이러한 욕구가 지향하는 대상=사랑

↳인간의 성은 사랑과 밀접한 관련

-성적인 사랑= 보통 열정→ 친밀감→ 참된 사랑

-열정=상대방의 성적 매력에 이끌려서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

-열정적인 사랑=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사로 잡힌다'

-성이 인격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 인간의 성이 사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동물의 성과 구별되는 인간다운 성의 핵심

-인간적인 성은 사랑 있는 성

-사랑 없는 성=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불완전한 성

-사랑 있는 성= 보다 좋은 성, 인간다운 성, 인간의 품위를 지켜주는 성

4. 도덕적 성

-성적 활동의 허용과 금지의 기준=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한 성은 옳고,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한 성은 그르다

-성적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적 의무와 관계

-도덕적 성에 대한 세 가지 입장

①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 _____

-전통적 입장과 표면적인 주류 성 문화 대변하는 입장

-도덕적 성의 기준: 결혼과 출산, 결혼과 출산과 관련을 가질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

-정당한 성을 결혼 관계 내로 한정하는 전통적 관습을 옹호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 출산에 기여하는 것만이 성의 진정한 가치

-생식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성만이 도덕적이고, 성 그 자체를 위한 성은 비도덕적

-성 행위의 가능한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성행위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 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을 혼인의 틀 내로 제한

-성을 결혼의 틀 내로 한정하고 혼외의 성을 도덕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결혼과 가족 제도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혼전의 성, 간통, 매매춘과 같은 혼외의 성의 만연으로 인한 각종 성적 일탈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결혼은 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 즉 성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책임 있는 성 강조, 성의 안정성 중시

그러나

-오늘날은 피임에 의해 성과 생식의 분리가 가능한 시대

-출산의 부담으로부터, 그러므로 양육 책임 부담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성 가능

-무책임하지 않은 자유로운 성의 가능성이 열린 것

-현대적 상황은 책임의 부담을 벗고 성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적 경향에서 성의 다양한 측면을 무시하고 오직 출산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

②쾌락과 계약 중심 성 윤리= _____

-성의 중심을 쾌락으로 보는 입장

-성은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쾌락을 산출하는 즐거운 경험

-성적 쾌락의 추구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로운 성적 쾌락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

-성적 쾌락 추구의 자유를 강조

-밀 '자유론'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의 최대한의 자유"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도덕적 성의 기준

- 해악 금지의 원리 ("타인에게 해를 주지 말라")와 자율성 존중의 원리("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라")

-해악 금지 원리: 강간, 성 희롱, 성 추행, 성 폭력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물리적 해악(신체적 상해, 이익 침해), 정신적 해악(불쾌감), 사적 해악, 공적 해악(공익의 침해)

-자율성 존중의 원리: 성 관계를 계약으로 봄

↳상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 요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성관계는 반드시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합의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여야 함

↳강제, 무지, 기만에 의한 성은 비도덕적

↳미성년자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 관계는 비도덕적

↳강제나 기만이 없고 무지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이나 정서적, 지적 취약함을 이용하여 성 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라고 볼 수 없다

-혼인과 무관한 성(혼전의 성, 혼외의 성), 출산 가능성을 막는 성(피임, 낙태), 사랑 없는 성, 출산과 무관한 성(동성애, 자위)등은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

그러나

-자유주의 성 윤리는 성행위의 도덕적 책임 범위를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성적 책임의 범위를 너무 축소시키는 문제

-성 관계를 계약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왜곡 발생: 상품가치, 특정한 계약이 진정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라는 의문 제기

-단순히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적 정당화는 무리

-자발적으로 상호 동의하는 성인들 간의 혼외정사, 자발적 선택에 의한 매춘을 비도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과도한 허용은 문제

③사랑중심 성 윤리=_____

-사랑을 도덕적 성의 기준으로 제시

-사랑 있는 성은 도덕적으로 옳고, 사랑 없는 성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사랑만이 인간적 성의 고유한 가치

-인간의 성은 사랑을 통해 동물적 차원에서 벗어나서 인격적 차원으로 고양

-사랑 있는 성이 인격의 성장과 완성에 중요하다는 점 강조

-사랑 있는 성은 타 인격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자아실현과 인격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해서,

-사랑 없는 성은 인간을 짐승 또는 그 이하의 존재로 전락시키고, 인격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인격의 통합성을 파괴

-인간의 성을 도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

-사랑은 인간의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성 관계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굳이 성에 혼인이나 출산과 같은 제약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결혼 및 출산과 무관한 성이라고 해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 관계라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사랑 있는 성적 자유 인정

-사랑 없는 성은,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성이라고 해도 도덕적이지 않다

-혼인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매춘과 다를 바 없고, 또 출산과 관련된 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번식 기계에 불과한 동물의 성과 다를 바 없다

-쾌락을 가져오는 즐거운 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성적 쾌락이 아니면 방탕함

-사랑 없는 성은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성적 자유와 성적 책임을 사랑으로 절충

-사랑 없는 성적 자유는 성적 무책임과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성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성적 활동에서 인간관계의 질의 중요성 부각

-인간의 성은 행위이자 관계

-인간의 성적 활동은 행위의 측면보다 오히려 인간관계의 측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랑 있는 성만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사랑 없는 성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요구

-사랑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호 자발적인 동의하에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성이라면 반드시 그러다고만은 할 수 없다

-사랑은 도덕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상적 성의 기준으로 적합

-사랑은 의무라기보다는 덕

-사랑은 성의 가치들 중 하나, 사랑을 성의 본질적 가치로 보는 것도 성적 이상들 중 하나

-사랑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성 도덕은 자유롭고 다양한 성적 이상의 추구를 배제

-다원주의적 시대 상황과 조화되기 어려움

-사랑을 도덕적 성의 기준으로 내세우기보다 사랑의 전제 조건인 인격존중을 도덕적 성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도주의 성 윤리로 더 적합

-사랑과 결부되지 않더라도 인격 존중의 기준은 도덕적 성의 기준으로 적합

5. _____ 과 _____ 중심의 성 윤리

*** 도덕적 성의 기준

-인간의 성적 활동은 행위와 관계의 두 측면: 성행위, 성관계

-행위를 지배하는 도덕규범= 책임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도덕규범= 존중

도덕은 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성행위와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 성관계에서 서로를 존중 할 것을 요구

이 두 규범을 중심으로 기존의 성윤리 이론들을 비판하고 종합적으로 재구성

①보수주의 성 윤리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성의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에 대한 책임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오늘날처럼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실성이 줄어들고 있다

②자유주의 성윤리

-성적 쾌락의 가치와 성적 자유를 강조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성행위의 도덕적 책임 범위를 해악금지원리로 한정함으로써 성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성 관계에서의 존중의 규범을 계약에서의 자율성 존중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계약 상황에서 발생하는 많은 도덕적 왜곡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

③사랑 중심의 중도주의 성 윤리

- 성적 활동에서 인간관계의 질을 중시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이상적 성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도덕적 성의 기준으로 내세움으로써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문제가 있다.

1)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

①인과 책임

②인격 책임: 성적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책임. 책임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책임

-책임의 대상이 미래에 있느냐 과거에 있느냐: 사전 책임, 사후 책임

-책임의 대상에 따라: 과제 책임, 행위 책임

-사전 과제 책임: 잠재적 부모로서의 역할 책임

↳성행위는 생식과 자연적으로 연관

↳성행위는 인위적 통제가 없는 한 잠재적으로 임신의 가능성 포함

↳성행위의 결과가 실제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경우, 성행위는 부모와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 성행위 당사자들은 부모로서의 역할 책임(자녀 양육의 책무)짐

↳잠재적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가 아직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조건을 구비하는 책임 의미

↳성행위 당사자들은 잠재적 부모로서 양육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성행위를 해야 할 사전 과제 책임: 양육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성행위의 결과로 새 생명이 태어나더라도, 태어난 아이의 생존은 위태롭게 되고, 그 아이의 인생 전망 어두움

-사전 행위 책임: 성행위의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 할 일반적 책임. 즉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결과를 방지해야 할 책임.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성행위로부터 임신과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비롯한 예상되는 결과들을 사전에 어떻게 통제 할 것인가에 초점

여기에는 세 가지 의무 포함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성행위를 통해 관련된 당사자들이나 제3자 또는 사회 전체에 직접적 해악을 가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성 폭력이나 청소년 성 매매와 같이 사적, 공적으로 직접적 해악을 동반하는 성행위는 해악 금지의 일반적 의무에 의해 금지

↳ 성행위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성행위가 나쁜 부수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주의와 예방의 의무). 성행위는 충분한 주의와 예방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기가 쉽다. 예컨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서

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출산 또는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사회의 바람직한 성적 관행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성행위 당사자들은 성행위 전에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가 나쁜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할 사전 행위 책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잠재적 부모로서 역할 책임을 인수할 용의나 준비가 없는 경우 가능한 한 임신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임과 더불어 예방 조치로서 합리적인 피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행위의 나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전 행위 책임을 인수하는 자세

↳ 성행위 당사자들은 성행위를 통해 가능한 한 좋은 결과를 낳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성행위의 당사자들은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안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성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될 책임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성의 가치들을 실현해야 할 책임

2) 성관계에서의 존중

-칸트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인격에 있는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

-성관계에서 상대방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단순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① 인격을 수단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관계에서 상대방을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성 관계가 독립적인 두 인격 사이의 관계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성적 욕망은 상대방을 인격과 분리된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상대방을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게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성적인 존재, 나의 성적인 도구 또는 노리개로 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의 대상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그것은 인격에 어울리는 대접이 아닌 것이다.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 관계는 인간의 성을 비인격적인 성 관계, 인간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성관계로 타락시킨다. 나아가 우리는 성관계에서 상대방을 나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강제나 기만 또는 상대방의 정서적, 지적 나약함과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 관계를 가지는 것은 모두 상대방을 나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상대방이 동의하는 성 관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는 성 관계 역시 상대방을 단순한 수단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② 상대방을 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대방의 목적을 마치 자기의 목적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상대방의 자율적인 목적 정립 능력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정립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닿는 한에서 돕는 것을 의미.

-성 관계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존중하고 그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호혜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

-성행위는 서로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

-성 관계에서 상대방을 나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욕구와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또는 그녀의

욕구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 성 관계에서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 인격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강제, 기만, 착취가 없는 상태에서 상호 자발적인 동의하에 성적 욕망을 호혜적으로 충족하는 것

*도덕적 성의 필수조건은 _____ 과 _____

① 성관계에서 상대방을 강제, 기만, 착취하거나 인격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며(대상화 또는 착취 금지의 의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적 욕구를 호혜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요구

② 성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성행위를 통해 관련된 당사자들이나 제3자 또는 사회 전체에 직접적 해악을 가하지 말 것과 성행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예방 조치를 취할 것 요구

⇒ 책임과 인격존중 중심의 중도주의 성 윤리

책임과 인격 존중 중심의 성 윤리는 책임 있고 상호 존중하는 한에서 성적 자유를 옹호함으로써 성적 자유와 성적 안정성의 조화

*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호혜적일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으며, 책임 있는 성이 될 수도 있고, 무책임한 성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다. 성이 호혜적이고, 책임 있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중함 그리고 사랑과 절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성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외면하는 이기적 성이고, 신중하게 주의하지 않는 성은 무책임한 성이며, 사랑이 없는 무절제한 성은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추한 것이다.